석주명의 한국산 나비 연구 3부작

문만용(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1. 들어가는 말

1948년 6월 8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김동일, 문리대학 학장 이태규, 약학대학 학장 도봉섭, 화학공학과 학과장 리승기 등 당대의 대표적 과학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자)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좌담회를 가졌다. 그들은 과학기술진흥이 국가재건에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한국 과학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낙후된 상태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한 참석자가 조금은 다른 의견을 밝혔다.

> "동식물방면에서는 향토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령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물리화학방면에서는 [한국]물리화학자들에게 외국 사람들이 선생님 대접을 하면서 무엇을 물어보게 될 것은 이후에 10년이나 20년 있어도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동식물방면만큼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물어볼 것도 배울 것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1]

동식물이 지니는 토착성 혹은 향토성 때문에 한국 생물학자들이 외국 학자들에 비해 우위에 있어 한 수 가르쳐줄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 이런 도발적인 주장을 한 사람은 국립과학박물관 동물학연구부장 나비학자 석주명이었다. 그의 발언에 중앙공업연구소 소장 안동혁은 웃음과 함께 "그런 방면은 다행입니다. 물리화학은 세계수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라고 화답했다. 석주명의 그같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사실 석주명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근거 있는 의견이었다. 한국산 나비에 대해서는 전세계 어느 누구도 그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와 표본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단순히 한국산 생물에 대한 연구이기에 한국 학자가 유리하다는 일반론이 아니라 20여 년간 남다른 노력으로 국제학계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받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당당함이었다.

40세의 의기충천한 나비학자 석주명은 그로부터 2년 뒤 한국전쟁 와중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대중들의 기억에서 멀어져갔다. 다행히 1985년 이병철의 『석주명 평전』이 나오면서 석주명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98년 문화관광부에 의해 '이달의 문화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자들을 기리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기에 이르렀다.[2] 평전 이외에도 석주명의 삶과 학문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고, 필자도 3편의

1) "좌담회: 새과학을 이야기하는 밤", 『현대과학』 8호 (1948), 44-51쪽. 이 좌담회는 1948년 6월 8일 개최되었으며, 석주명, 김동일, 이태규, 이승기, 도봉섭 외에 서울대 문리대 강사 김종철, 의과대 교수 박영돈, 조선은행 이사 백두진, 특허국장 이채호, 공대 교수 황영모, 체신부 전무국장 황신성, 농사개량원 총재 현근, 그리고 중앙공업연구소연구회 측에서 이사장 안동혁, 경리부장이사 최인재, 편집부장이사 백쌍암 등이 참석했다.

2) 기억 밖에 있던 석주명을 소환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는 이병철이 지은 평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나비박사 석주명 평전』 (동천사, 1985). 이 책은 1989년 아카데미서적, 1993년에 성현출판사에서 다시 출판되었으나 내용의 변화는 없다. 2002년 그물코에서 『석주명 평전』이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나왔다.

논문을 통해 석주명의 연구활동을 이해하고자 했다. 우선 석주명을 “조선적 생물학자”로 규정하고, 그의 나비연구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했다.[3] 두 번째는 석주명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 등 ‘석주명식 확산형 학문’은 기본적으로 나비연구의 연장임을 주장했다.[4] 마지막으로 석주명 연구활동의 특성이 ‘교사 겸 생물학자’라는 그의 환경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의 나비 연구 방식을 ‘문화적 민족주의’로 파악하고자 했다.[5]

최근에는 석주명을 제주학의 태두나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로 이해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6] 하지만 필자는 여전히 석주명 학문 활동의 시작과 끝은 나비연구라고 믿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석주명의 대표작인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를 중심으로 그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한국산 접류의 연구』와 『한국산 접류 분포도』 등 석주명의 ‘한국산 나비 연구 3부작’으로 돌아가 그와 관련된 석주명의 논문을 검토하면서 3부작의 관계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물론 뒤의 두 권은 석주명의 사후 20여 년이 지나 그의 누이인 석주선이 편집하여 간행한 유고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비록 두 권의 유고가 뒤늦게 출간된 “지연된 후속작”이고, 이 책의 구성이 석주명이 처음부터 의도한 방식이었는지도 불확실하지만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Synonymic List*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함께 검토함으로써 석주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일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Synonymic List*는 널리 알려진 책이지만 직접 살펴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뒤의 두 권도 마찬가지다. 석주명의 한국산 나비 연구 3부작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석주명의 나비 연구사를 개관한 다음 세 권의 집필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석주명의 학문을 새롭게 조명해보겠다.[7]

2. 석주명의 나비연구사[8]

1929년 일본 가고시마(鹿兒島)고농을 졸업하고 1931년부터 모교인 송도고보의 박물교사가 된 석주명은 주변의 나비채집에서부터 나비연구를 시작했다. 그 즈음 일본에서 간행된 곤충도감을 이용하여 채집한 표본들을 동정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1932년부터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한 그는 점차 자신의 조사결과와 참고문헌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가 같은 종으로 분류한 표본들이 도감에는 다른 종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를 찾던 그는 학자들이 같은 종의 개체변이에 불과한 표본들에게 새로운 학명을 부여했기 때문임을 파악했다. 많은 표본을 채집한 그의 눈에는 연속적인 변이가 보였지만 소수의 표본만을 살피고 변이가 심한 개체를 새로운 종이나 아종으로 발표한 해외 학자들이 드물지 않았다. 여기에는 학자들이 학명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공명심과 만국명명규약이 지니는 문제도 작용했다. 결국 개체변이를 오해한 잘못된 연구가 적지 않음을 확인한 석주명은 많은 표본을 채집하여 개체변이의

3) 문만용, “‘조선적 생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한국과학사학회지』 21-2 (1999), 151-193쪽.
4) 문만용, “나비분류학에서 인문학까지 – 석주명식 확산형 학문의 전개와 의미”, 『탐라문화』 40 (2012), 33-75쪽.
5) Manyong Moon, “Becoming a Biologist in Colonial Korea: Cultural Nationalism in a Teacher-cum-Biologist”,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6-1 (2012), pp. 65-82.
6) 윤용택 외, 『학문 융복합의 선구자 석주명』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2); 윤용택, “석주명의 학문이념에 관한 연구 – 통재(通才)와 융섭(融攝)의 측면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25 (2017), 121-149쪽.
7) 석주명의 『조선나비 이름의 유래기』 (백양당, 1947)도 한국산 나비 전체를 다루는 저작이라 할 수 있지만 책의 내용이 앞의 세 권과는 결을 달리 하기 때문에 석주명의 나비 분류학 연구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8) 이 부분은 문만용, “나비분류학에서 인문학까지” (2012) 3절을 줄이고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범위를 밝혀 기존 연구가 개체변이에 포함됨을 보임으로써 잘못된 학명, 즉 동종이명(同種異名, synonym)을 학계에서 퇴출하는 것을 자신의 주된 연구 방향으로 잡았다.

하지만 스스로가 밝혔듯이 개체변이를 통해 이명을 제거하는 것은 석주명이 처음 창안한 것은 아니었다. 1893년에 *Butterflies from China, Japan, Corea*를 펴낸 리치(J. H. Leech)는 이미 개체변이에 관해 논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의 어류연구 권위자였던 도쿄제대 다나카(田中茂穗)는 1926년 말에 자신이 개체변이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했으며, 이에 즉각 반응을 나타낸 사람이 석주명이라고 밝혔다. 석주명은 1950년에 완성한 유고 "한국산 접류의 연구(제3보)"에서 자신이 처음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연구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그러한 연구방법론을 인식했으며, 다나카는 자신보다 나중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석주명이 순전히 독자적으로 그같은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가 자신의 채집·조사 과정에서 개체변이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은 확실하다. 더 나아가 앞날개 길이, 뱀눈무늬의 수와 위치 등 개체변이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량적 형질을 추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접근법은 그가 고안한 것이었다. 석주명은 배추흰나비의 변이연구를 위해서 167,837 개체의 앞날개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규분포곡선을 만들어 20여 개의 학명을 제거했다. 또한 굴뚝나비의 앞날개 길이와 뱀눈무늬의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34,235개의 표본을 조사하여 아종으로 보고된 10여개의 동종이명을 밝혀냈다.

석주명은 한 종 당 1만개 이상의 개체를 조사해야 바람직한 개체변이 결과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보았는데,[9] 이러한 연구방법은 현재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소모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통계학적 지식을 생물분류학에 본격적으로 적용시킨 논의는 서구 학계에서도 193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석주명이 활동했던 당시의 분류학 수준에서는, 그리고 통계학을 깊이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그의 처지에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개체를 모집하는 것이 중시될 수밖에 없었다. 중요한 것은 표본을 모으는 것도,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아무나 그같은 연구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석주명의 분류학 연구는 가능한 한 이미 인정된 체계에 포함시켜 분류군을 크게 나누려는 통합론자(lumper)의 것으로, 당시 많은 학자들이 택하고 있는 세분론자(splitter)의 대척점에 있었다. 그는 수년에 걸친 채집 · 조사 결과 자신도 모르게 극단적인 통합론자가 되었다면서 장차 학자들이 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통합론자의 방식이 올바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분류학이 "참된 분류학"(眞の分類學)이라고 주장했다.[10]

전형적인 통합론자였던 석주명의 나비분류학은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의 출간으로 그 정점을 이루게 되었다. 이 책은 영국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의 요청을 받아 집필된 것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산 나비를 255종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종에 대하여 그 동안 발표되었던 모든 연구 문헌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일부 미기록종과 함께 212개에 달하는 동종이명의 목록을 덧붙였다. 4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한국인으로 최초이자, 일제 강점기 한국인 과학기술자가 집필한 유일한 과학기술 분야 영문 저서였다. 이 책은 500부를 발행해 300부는 국내와 일본에, 200부는 유럽과 미국에 판매했으며, 석주명은 일본을 넘어 구미학계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11]

---

9) 石宙明, "朝鮮産蝶類の研究(第二報)", 『鹿兒島博物同志會研究報告』 5권 16호 (1942). 5쪽.
10) 石宙明, "朝鮮産蝶類の研究(第二報)", 6쪽.
11) 이 책의 발간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 (아카데미서적, 1989), 85-86쪽을 참고.

석주명식 나비분류학은 *Synonymic List*의 완성으로 그의 표현대로 정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물론 이후에도 다수 표본의 통계처리를 통해 개체변이 범위를 밝힘으로써 동종이명을 제거하는 연구방식이 계속되었지만 연구결과는 한두 종 나비를 다루는 소논문보다 한국산 나비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논문 형태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서 분포연구라는 새로운 결과가 추가되었다. 1939년부터 등장한 분포연구는 변이연구를 다룬 논문 뒤에 분포지도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분포연구는 방대한 표본의 채집을 기본으로 하는 석주명식 분류학의 자연스러운 연장이었다. 변이연구를 위해서는 다수의 개체를 채집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분포 양상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이연구보다 분포연구는 훨씬 넓은 범위의 자료 축적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1939년부터 분포연구를 담은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10여 년에 걸친 채집 · 연구의 결과로 한국산 나비의 분포를 밝힐 수 있을 만큼 석주명의 조사 자료가 축적되었음을 뜻했다. 하지만 그의 생존 시에는 분포연구는 독립적인 논문이나 저작으로 간행되지는 못했다.

결국 석주명의 나비연구는 주변에서 채집한 나비를 동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개체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개체변이의 범위를 밝혀 동종이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었고, 변이연구 과정에서 확보한 각 종의 서식 정보는 분포 연구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는 고전 문헌에 나오는 나비에 대한 기사를 찾고, 해방 이후에는 나비 이름의 우리말 이름 짓기에 나서는 한편 방언 등 제주도 연구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관심사를 확장시켰다. 토착성이 강한 생물학 연구를 국학의 차원까지 끌어올리려 했던 석주명이지만 그의 학문 활동의 핵심은 역시 나비분류학이었다.

3.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Synonymic List*는 10여 년에 걸친 석주명의 변이 연구의 한 정점이자, 그의 연구성과가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를 마련해 준 역작이었다. 1936년 경 송도고보 교장을 지냈던 슈나이더(L. H. Snyder)[12]의 주선으로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는 석주명에게 조선산 나비에 관한 총목록의 작성을 요청하였다.[13] 이에 석주명은 1937년에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의 잡지인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에 발표하기 위해 조선산 나비에 관해 150쪽 가량의 논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학회의 요청으로 이 논문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고 *Synonymic List*의 기초가 되었다.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는 1900년에 조직되었으며, 이곳이 발행하는 잡지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은 현재도 간행되고 있으며, 서구 한국학 학자들이 유용한 1차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14] 이 잡지에는 한국의 사회,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종교,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이 실렸으며, 과학 분야에는 루퍼스(W. C. Rufus)의 천상열차분

12) 미국인 슈나이더(한국명 申道愛)는 1908년 남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한 이래 기독교 청년운동 등에 헌신했으며, 1926년부터 1933년까지 송도고보 6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석주명의 연구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석주명은 1934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발견한 네발나비과의 신종을 슈나이더를 기념하여 *Meletaea snyderi* Seok으로 명명한 바 있다. 石宙明, "新種スナイダーヘウモンモドキに就いて", *Zephyrus* 6 (1935), 178-179쪽.

13) 석주명이 1937년에 왕립 아시아학회의 청탁으로 논문을 집필 중이었다는 사실은, "科學朝鮮에 朗報--英國王立協會機關誌에 朝鮮産蝶類紹介", 『朝鮮日報』(1937. 3. 27.)에서 확인된다.

14) 이고은,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정기간행물 『트랜스액션』 탐색적 연구: 1900-1924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40-3 (2017), 225-253쪽.

야지도에 대한 글을 비롯하여 한의학에 대한 글, 한국의 선박건조기술에 대한 글, 한국의 전통 무기에 대한 글 등이 실렸다. 대부분 서구인인 필자들은 많은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중간에 놓여 있었으며, 그들의 글에는 적지 않은 시대적 및 개인적 한계들이 담겨 있었다.[15] 석주명의 *Synonymic List*도 당초에는 *Transactions*에 게재하려 했지만 너무 방대한 분량이어서 단행본으로 펴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그의 글이 *Transaction*에 실린 다른 논문들과는 성격이 다소 달랐던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Synonymic List*의 집필을 위해 석주명은 학교를 쉬고 넉 달 동안 도쿄제대(東京帝大)의 동물학회 도서관에서 작업에 몰두하여 1939년 3월에 탈고하였고, 이는 다음해 뉴욕에서 인쇄되어 서울에서 발간되었다. 석주명은 *Synonymic List*의 원고를 1939년 3월에 완성하였으며 책의 표지에도 1939년으로 기록되었으나 실제 인쇄와 발간은 1940년에 이루어졌다. 이 책에 실린 석주명 서문의 날짜는 1939년 3월 19일인데, 그 직후인 1939년 7월 1일 투고되어 8월에 출판된 "朝鮮産蝶類ノ研究史"에는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의 의뢰를 받아 마무리한 *Synonymic List*의 작업에 2년 2개월이 걸렸다"고 밝히고 있다. 역산하면 193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을 것이며, 집필 의뢰를 받은 것은 1936년경으로 추정된다.

*Synonymic List*에는 석주명 연구의 적극적인 후원자이자 그의 연구가 널리 알려지게 했던 주인공 중의 한명인 슈나이더의 서문이 실려 있다.[16] 이에 따르면 미국의 지질학자로서 몽고 지역을 탐사하던 '앤드류즈(R. C. Andrews) 탐험대'의 일원이었던 모리스(F. K. Morris)는 고비사막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한 뒤 일행과 떨어져 경성으로 오던 중 개성(일본어 발음: 가이조 Kaijo)을 경성(일본어 발음: 게이조 Keijo)으로 잘못 알아듣고 개성에서 기차를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할 수 없이 개성에서 하루 머물게 된 그는 개성전도단의 안내로 송도고보의 박물관 표본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진열된 수많은 표본들을 본 모리스가 표본 수집 작업을 고무하면서 미국의 박물관과 표본을 교환할 것을 권유했으며, 그 결과로 송도고보 박물관은 '1930년부터' '조류, 포유류와 다른 표본들'(bird skins, mammals and other specimens)을 미국의 여러 박물관에 보내기 시작했다 한다.

그런데 석주명을 소개하는 여러 글들이 이러한 서술을 확대해석하여 정확한 연도는 제시하지 않은 채 모리스가 송도고보에서 '석주명'과 만났고, 석주명의 화려한 '나비 표본'에 모리스가 감탄하여 미국의 여러 박물관과의 표본 교환 및 연구비 지원을 주선해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1930년부터 표본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기술하였다.[17] 필자는 1999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석주명과 모리스와의 만남에 대한 서술은 최근까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18] 석주명이 세계적인 나비학자라는 명성을 형성하게 된 데에는 '모리스와의 우연한 만남'이 상당한 역할을 한 셈이다. 하지만 모리스가 송도고보를 방문했을 때 그 학교의 교장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리라 여겨지는 슈나이더는 모리스가 누구와 만나

15) 김신, "서구관찰자들의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의도 분석: 영국왕립아시아협회 한국지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문화연구』 40-4 (2017), 101-137쪽.

16) L. H. Snyder, "Foreword", D. M. Seok,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Tyōsen)* (Seoul: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40), p. ix. 석주명은 이름의 영어 표기를 D. M. Seok으로 하였는데, 이는 '주명'의 평안도 발음인 '듀명'을 따른 것이라 한다.

17) 석주명과 모리스와의 만남은 米昇右, "石宙明先生 十週期를 맞아", 『朝鮮日報』(1960. 10. 6.)을 비롯하여 서광운, "석주명과 우장춘", 『뿌리깊은 나무』 1976년 6월호, 84-89쪽 등 석주명을 소개하는 많은 글에 실려 있다.

18) 2015년 10월에 작성된 한 기사도 "1929년 말 미국의 모리스 박사가 개성을 경성으로 잘못 알고 기차에서 내려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송도고보 박물관에서 석주명의 나비표본을 보고 감명 받아 미국 곤충학계에 알렸고, 석주명은 이듬해부터 하버드대학 바이어 박사의 도움으로 나비 연구에 집중하게 됨"이라고 밝혔다. 손혁재, "[역사속 오늘 10/4 천사데이] 1928 '제3의 물결' 토플러 출생·1950 나비박사 석주명 별세·2002 북 고농축 핵개발계획 시인", *THEAsiaN* (2015.10.4.) 어린이 위인전에서도 이러한 설명은 여전히 등장한다.

고 어떤 표본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앞에 인용한 것처럼 1930년부터, 그리고 나비 표본이 아니라 조류, 포유류와 다른 표본들을 미국에 보내기 시작했다고 기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리스가 송도고보를 우연히 찾게 된 것은 늦어도 1930년 이전이 되는데 이때는 석주명이 송도고보에 부임하기 전이었다.[19]

그리고 석주명도 자신이 모리스와 만났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외국 기관의 지원은 슈나이더의 주선에 의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모리스가 우연히 송도고보를 찾았을 때는 석주명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없었으며, 모리스의 감탄을 자아낸 표본들도 원홍구가 채집한 조류 박제를 비롯하여 송도고보 박물관에서 수집한 동물 표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그 동안 세계적인 학자라는 석주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던 석주명과 모리스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는 정정될 필요가 있다.[20] 원홍구는 가고시마고농을 졸업하고 1920년부터 송도고보 교사로 근무하면서 조류 채집을 시작했으며, 석주명의 스승이기도 하다. 1931년 그가 안주공립농업학교로 옮겨가고 그 후임으로 석주명이 부임한 것이다.

물론 석주명과 모리스와의 만남이 사실이 아니었다 해도 석주명이 송도고보와 외국 기관 사이에 맺어진 관계의 혜택을 본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1931년 이후로 진행된 표본의 교환과 1933년 하바드대학의 비교동물학 박물관 관장인 바버(T. Barbour) 박사로부터 받은 백두산 채집여행에 대한 재정 지원 및 1936년 아메리카 자연사 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의 제주도산 인시류의 채집여행에 대한 지원 등은 석주명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 다트머스의 윌슨 박물관(Wilson Museum), 클리블랜드 박물관(Cleveland Museum)과 조류 연구 재단(Cleveland Bird Research Foundation), 시카고의 필드 박물관(Field Museum), 프린스턴대학, 캘리포니아대학의 박물관 등 여러 기관과 교류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해외의 나비 표본을 받아 비교연구를 할 수 있었다. 석주명이 외국에 보낸 표본들은 상태가 뛰어나고 채집일시와 채집지 등의 기록이 정교하여 해당 기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뉴욕의 아메리칸 박물관의 왓슨(F. E. Watson)은 "한국으로부터의 나비 상자가 채집일시와 채집지가 기록된 훌륭한 상태로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채집지와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들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는 답신을 보내왔으며, 프린스턴 박물관의 로저스(Chas. H. Rogers)는 "한국으로부터 아름다운 나비 표본이 도착했습니다. 그것들은 오래도록 우리의 곤충 컬렉션 중 대표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라고 답해왔다.[21]

석주명과 모리스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는 석주명의 학문적 성공이 서양인 학자와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행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 주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당시 한국인들의 문화적 열등감과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평가해 줄 한국인 학자사회의 부재 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외국인, 특히 서양인의 호의적 평가를 절대화하는 경향도 그러한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석주명의 표본(또는 원홍구의 표본)에 대한 모리스의 '극적인 감탄'은 곧 그들의 업적이 수준급임을 알려주는 증거로, 당시의 또는 후대의 한국인의 가슴속에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 아니 신화 속에서 식민지라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노력은 가려질

19) 석주명이 1931년에 송도고보에 부임했다는 것은 "松中二十五周年記念式--石 · 鄭 兩先生表彰式도 擧行", 『每日新報』(1941. 10. 7.)에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석주명은 鹿兒島高農을 마치고 함흥고보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1931년(昭和 6년)에 송도고보에 부임했으며, 10년 근속하여 1941년에 표창을 받았다.

20) 이병철은 처음 석주명 평전에서는 모리스가 석주명과 만난 때를 1931년 가을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병철, 『위대한 학문과 짧은 생애--나비박사 석주명 평전』(아카데미서적, 1989), 81-82쪽. 그러나 2002년 나온 개정판은 모리스 일행이 송도고보를 방문한 것이 1930년 늦가을이며, 그들이 발견한 표본이 원홍구의 조류 표본과 포유류 표본이었다고 수정되었다. 이병철, 『석주명 평전』(그물코, 2002), 94쪽.

21) L. H. Snyder, "Foreword",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ix.

수도 있는 것이다. 석주명과 모리스의 만남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석주명의 학문적 성공이 모리스와의 만남, 그리고 외국 기관들의 지원이나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에서 비롯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성공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적절한 방법론의 선택과 그를 뒷받침한 학문적 정진에 있었음을 *Synonymic Lis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라는 제목의 한국어 번역은 보통 『조선산 나비 총목록』 또는 『조선산 접류 총목록』, 『한국산 나비 목록』 등으로 불린다. 하지만 그대로 직역한다면 『한국산 나비의 동종이명 목록』이 된다. 서문에서 석주명은 "지금까지 조선산 나비는 많은 세분론자에 의해 분류되었으나 나는 통합론자로서 다시 분류하여 이 목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22] 이 책에는 255종에 달하는 조선산 나비 각각에 대하여 그 동안 발표되었던 모든 연구 문헌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일부 미기록종과 함께 212개에 달하는 동종이명의 목록이 덧붙여졌다.[23] 한국산 나비 총목록이라는 제목이 적절하지만 굳이 제목을 *Synonymic List*로 했다는 것은 그의 연구가 동종이명 제거를 주된 과제로 삼았음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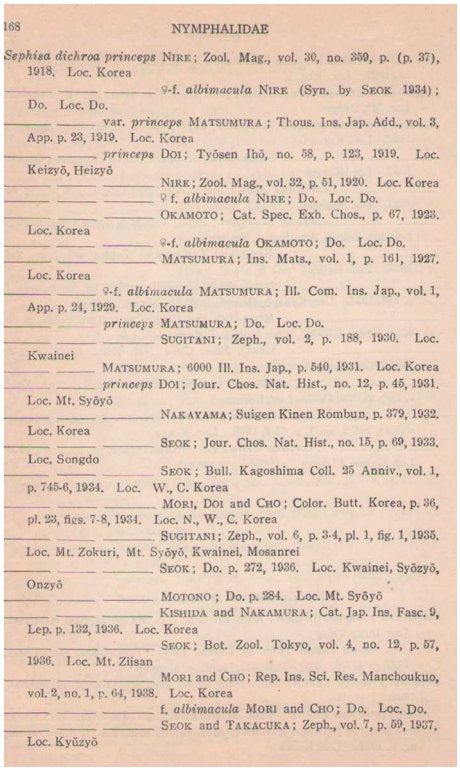
이 책에는 일본곤충학회 회장을 지냈고, 가고시마고농에서 석주명에게 곤충학을 가르쳤던 오카지마(岡島銀次), 어류학자 다나카(田中茂穗)의 서문과 일본 곤충학계의 태두이자 세계 곤충 분포구를 7개구로 나눈 '에자키 라인(Esaki Line)'의 제창자였던 큐슈제대(九州帝大) 에자키(江崎悌三)의 후기가 실려 있다. 오카지마는 석주명이 학생시절부터 보인 곤충학에 대한 열의와 능력을 지적하고 "석주명의 정확성 덕분으로 조선산 나비의 올바른 이름과 산지를 알고자 하는 연구자는 큰 도움을 받을 것이며, 그 동안 나온 이 분야의 저작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이 책을 주저 없이 추천한다"고 밝혔다.[24] 다나카는 "석주명의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그가 '개체변이'에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점으로, 1926년 말에 내가 주장했던 개체변이 중요성에 대해 즉각 반응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석주명이었다"고 밝혔다.[25]

책 말미에 실린 후기에서 에자키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한 마리의 나비가 어떤 종에 속하는지 전문가들조차 알아맞히기가 어려워진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는 지식이 쌓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학에의 공헌보다는 오히려 많은 혼란을 야기한 수많은 연구업적(?)때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석주명에 의해 이룩된 이 책은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이룩된 어떤 저작보다도 이해하기 쉽고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책이다... 지금까지의 어느 나비 연구가보다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극찬하였다.[26] 그는 완전한 나비 카탈로그를 만드는 것은 저자가 실제 동물상과 그와 관련된 서지학(bibliography) 양쪽 모두에 능하지 않으면 세계 어떤 지역이든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면에서 도서 지역을 비롯해 한반도 전역을 다니면서 변이연구와 분포연구를 해왔던 석주명이 한국에서 유일하고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Synonymic List*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에자키는 서지학을 언급했을까? 책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석주명의 서문에 이어 200여 편에 달하는 참고문헌의 목록과 255종의 학명을 나열한 리스트가 실려 있다. 그리고 제주왕나비과(Danaidae) 1종, 뱀눈나비과(Satyridae) 35종, 네발나비과(Nymphalidae) 82종, 뿔나비과(Libytheidae) 1종, 부전나비과(Lycaenidae) 64종, 흰나비과(Pieridae) 18종, 호랑나비과(Papilionidae) 17종, 팔랑나비과(Hesperiidae) 37종,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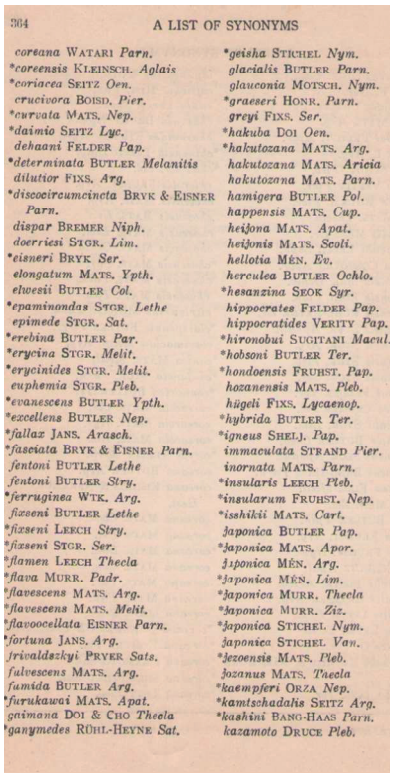
22) D. M. Seok, "Preface",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xii.
23) 석주명은 1950년의 논문에서 Synonymic List에 기록된 255종도 다시 정리하면 234종이 된다고 밝혔다. 石宙明, 『韓國産 蝶類의 硏究』(보진재, 1972), 45쪽.
24) G. Okazima, "Foreword", D. M. Seok,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v.
25) S. Tanaka, "Foreword", D. M. Seok,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viii.
26) T. Esaki, "Postscript", D. M. Seok,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407.

잘못 보고된(misreported) 5종의 순서로 각 종마다 세부 정보가 실려 있다. 우선 학명이 제시되고, 다음으로 그 종을 처음으로 보고한 저작의 서지사항과 그때 사용된 학명이 나온다. 뒤 이어 그 종을 다룬 문헌의 서지사항과 학명이 나열되며, 서지사항 뒤에는 그 문헌에서 해당 종이 발견된 위치에 대한 정보도 기록된다. 처음 보고된 학명이 변함없이 유지될 경우 학명 부분은 '_____ _____'로 표기되며, 중간에 다른 종으로 보고된 경우 그 학명, 즉 동종이명이 제시된다. 적은 경우 단 두 건의 문헌이 소개되기도 했고, 50개나 넘는 많은 자료가 제시된 종도 있다. 결국 이 책의 정보를 통해 특정 종의 나비에 대해 누가 제일 먼저 보고 했고, 이후 그 종을 다룬 연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다른 종이나 아종으로 보고되었다가 이후 같은 종으로 인정된 이명들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발견된 위치를 통해 그 종의 분포지역도 파악 가능했다.



168 NYMPHALIDAE

Sephisa dichroa princeps NIRE; Zool. Mag., vol. 30, no. 359, p. (p. 37), 1918. Loc. Korea
_____ _____ _____ ♀-f. *albimacula* NIRE (Syn. by SEOK 1934); Do. Loc. Do.
_____ _____ var. *princeps* MATSUMURA; Thous. Ins. Jap. Add., vol. 3, App. p. 23, 1919. Loc. Korea
_____ _____ *princeps* DOI; Tyōsen Ihō, no. 58, p. 123, 1919. Loc. Keizyō, Heizyō
_____ _____ _____ NIRE; Zool. Mag., vol. 32, p. 51, 1920. Loc. Korea
_____ _____ _____ ♀ f. *albimacula* NIRE; Do. Loc. Do.
_____ _____ _____ OKAMOTO; Cat. Spec. Exh. Chos., p. 67, 1923. Loc. Korea
_____ _____ _____ ♀-f. *albimacula* OKAMOTO; Do. Loc. Do.
_____ _____ _____ MATSUMURA; Ins. Mats., vol. 1, p. 161, 1927. Loc. Korea
_____ _____ ♀-f. *albimacula* MATSUMURA; Ill. Com. Ins. Jap., vol. 1, App. p. 24, 1929. Loc. Korea
_____ _____ *princeps* MATSUMURA; Do. Loc. Do.
_____ _____ _____ SUGITANI; Zeph., vol. 2, p. 188, 1930. Loc. Kwainei
_____ _____ MATSUMURA; 6000 Ill. Ins. Jap., p. 540, 1931. Loc. Korea
_____ _____ *princeps* DOI; Jour. Chos. Nat. Hist., no. 12, p. 45, 1931. Loc. Mt. Syōyō
_____ _____ _____ NAKAYAMA; Suigen Kinen Rombun, p. 379, 1932. Loc. Korea
_____ _____ _____ SEOK; Jour. Chos. Nat. Hist., no. 15, p. 69, 1933. Loc. Songdo
_____ _____ _____ SEOK; Bull. Kagoshima Coll. 25 Anniv., vol. 1, p. 745-6, 1934. Loc. W., C. Korea
_____ _____ _____ MORI, DOI and CHO; Color. Butt. Korea, p. 36, pl. 23, figs. 7-8, 1934. Loc. N., W., C. Korea
_____ _____ _____ SUGITANI; Zeph., vol. 6, p. 3-4, pl. 1, fig. 1, 1935. Loc. Mt. Zokuri, Mt. Syōyō, Kwainei, Mosanrei
_____ _____ _____ SEOK; Do. p. 272, 1936. Loc. Kwainei, Syōzyō, Onzyō
_____ _____ _____ MOTONO; Do. p. 284. Loc. Mt. Syōyō
_____ _____ _____ KISHIDA and NAKAMURA; Cat. Jap. Ins. Fasc. 9, Lep. p. 132, 1936. Loc. Korea
_____ _____ SEOK; Bot. Zool. Tokyo, vol. 4, no. 12, p. 57, 1936. Loc. Mt. Ziisan
_____ _____ _____ MORI and CHO; Rep. Ins. Sci. Res. Manchoukuo, vol. 2, no. 1, p. 64, 1938. Loc. Korea
_____ _____ _____ f. *albimacula* MORI and CHO; Do. Loc. Do.
_____ _____ _____ SEOK and TAKACUKA; Zeph., vol. 7, p. 59, 1937. Loc. Kyūzyō



364 A LIST OF SYNONYMS

coreana WATARI *Parn.*
**coreensis* KLEINSCH. *Aglais*
**coriacea* SEITZ *Oen.*
crucivora BOISD. *Pier.*
**curvata* MATS. *Nep.*
**daimio* SEITZ *Lyc.*
dehaani FELDER *Pap.*
**determinata* BUTLER *Melanitis*
dilutior FIXS. *Arg.*
**discocircumcincta* BRYK & EISNER *Parn.*
dispar BREMER *Niph.*
doerriesi STGR. *Lim.*
**eisneri* BRYK *Ser.*
elongatum MATS. *Ypth.*
elwesii BUTLER *Col.*
**epaminondas* STGR. *Lethe*
epimede STGR. *Sat.*
**erebina* BUTLER *Par.*
**erycina* STGR. *Melit.*
**erycinides* STGR. *Melit.*
euphemia STGR. *Pleb.*
**evanescens* BUTLER *Ypth.*
**excellens* BUTLER *Nep.*
**fallax* JANS. *Arasch.*
**fasciata* BRYK & EISNER *Parn.*
fentoni BUTLER *Lethe*
fentoni BUTLER *Stry.*
**ferruginea* WTK. *Arg.*
fixseni BUTLER *Lethe*
**fixseni* LEECH *Stry.*
**fixseni* STGR. *Ser.*
**flamen* LEECH *Thecla*
**flava* MURR. *Padr.*
**flavescens* MATS. *Arg.*
**flavescens* MATS. *Melit.*
**flavoocellata* EISNER *Parn.*
**fortuna* JANS. *Arg.*
frivaldszkyi PRYER *Sats.*
fulvescens MATS. *Arg.*
fumida BUTLER *Arg.*
**furukawai* MATS. *Apat.*
gaimana DOI & CHO *Theela*
**ganymedes* RÜHL-HEYNE *Sat.*
**geisha* STICHEL *Nym.*
glacialis BUTLER *Parn.*
glauconia MOTSCH. *Nym.*
**graeseri* HONR. *Parn.*
greyi FIXS. *Ser.*
**hakuba* DOI *Oen.*
**hakutozana* MATS. *Arg.*
hakutozana MATS. *Aricia*
hakutozana MATS. *Parn.*
hamigera BUTLER *Pol.*
happensis MATS. *Cup.*
heijona MATS. *Apat.*
heijonis MATS. *Scoli.*
hellotia MÉN. *Ev.*
herculea BUTLER *Ochlo.*
**hesanzina* SEOK *Syr.*
hippocrates FELDER *Pap.*
hippocratides VERITY *Pap.*
**hironobui* SUGITANI *Macul.*
**hobsoni* BUTLER *Ter.*
**hondoensis* FRUHST. *Pap.*
hozanensis MATS. *Pleb.*
hügeli FIXS. *Lycaenop.*
**hybrida* BUTLER *Ter.*
**igneus* SHELJ. *Pap.*
immaculata STRAND *Pier.*
inornata MATS. *Parn.*
**insularis* LEECH *Pleb.*
**insularum* FRUHST. *Nep.*
**isshikii* MATS. *Cart.*
japonica BUTLER *Pap.*
**japonica* MATS. *Apor.*
japonica MÉN. *Arg.*
**japonica* MÉN. *Lim.*
**japonica* MURR. *Thecla*
**japonica* MURR. *Ziz.*
**japonica* STICHEL *Nym.*
japonica STICHEL *Van.*
**jezoensis* MATS. *Pleb.*
jozanus MATS. *Thecla*
**kaempferi* ORZA *Nep.*
**kamtschadalis* SEITZ *Arg.*
**kashini* BANG-HAAS *Parn.*
kazamoto DRUCE *Pleb.*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 1939>

사실 이 책에는 서문을 제외하고는 석주명이 작성한 완전한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문은 255종의 나비를 다룬 연구 문헌의 서지사항으로 가득 차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 그대로 목록집(List)이다. 석주명의 *Synonymic List*이전에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나비 목록에 *Synonymic List*라는 제목을 단 저작은 Henry Doubleday의 *A Synonymic List of All the British Butterflies and Moths* (1862, 2판)나 Samuel Hubbard Scudder의 *Synonymic List of the Butterflies of North America, North of Mexico. Part 1.Nymphales. Part 2.Rurales* (1875) 등이 있다. 전자는 제목 그대로 영국의 나비와 나방의 동종이명 목록만을 나열한 40쪽 분량의 얇은 책이고[27], 후자는 석주명의 저서와 유사하게 각 종마다 발표된 기존 연구성과까지 목록화 한 것이다.[28] 석주명이 이 책들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Synonymic List*라는 제목이 완전히

27)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uc1.b3379129;view=1up;seq=4

새롭거나 아주 독특한 제목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분류학 연구의 진전에 따라 이명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저작에서도 *Synonymic List*라는 제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29] 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가 함께 펴낸 『국가표준식물목록』도 영문명을 *A Synonymic List of Vascular Plants in Korea*로 표기했다.[30] 국내에 분포하고 있는 자생식물과 귀화식물 등 총 205과 4,881종의 식물명을 정리한 이 책은 각 종의 학명 아래 이명과 우리 이름(국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도서관은 이 책을 식물학이나 생물학이 아닌 '서지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책이 석주명의 책처럼 기존 연구의 서지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록'이라는 성격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에자키가 생물 자체와 서지학에 능해야만 *Synonymic List*를 쓸 수 있다고 했던 평가를 이해할 수 있다. 석주명의 *Synonymic List*에는 193종의 참고문헌이 기록되어 있지만 일부 목록은 연작으로 나온 성과를 하나로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종이 넘는다. 따라서 이 책을 위해서는 단순히 계산해도 255(나비 종)×200(문헌 수)의 방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수작업으로만 이러한 정리를 한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과제일 것이다. 일단 관련 연구를 섭렵해 최대한 많은 문헌을 찾아야 하고, 각각에 기록된 개별 나비에 대한 서술을 모두 뽑아서 정리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수백 개가 넘는 이명을 골라내서 착오를 없애야 한다. 그 결과물을 각 종마다 연대순으로 정리한 것이 *Synonymic Lis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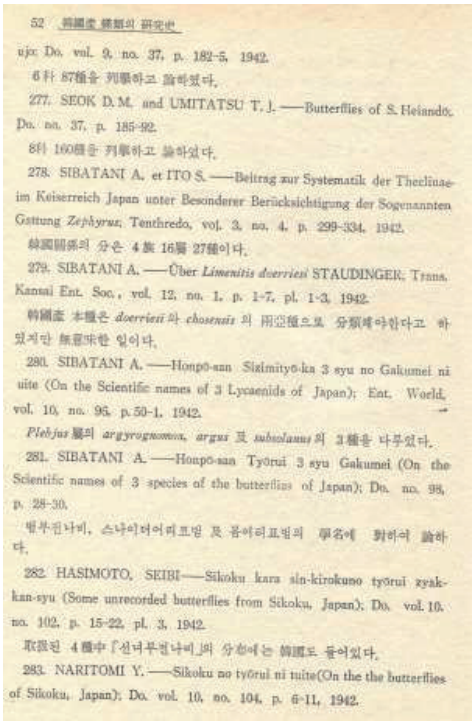
석주명은 제주도와 관련한 기록을 총정리한 『제주도문헌집』 등을 통해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는 서지학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에 앞서 *Synonymic List*에서부터 서지학에 다름없는 연구 결과인 *Synonymic List*를 내놓았던 것이다. 즉 이 책은 나비 분류학과 서지학을 결합한 결과물인 셈이다. 석주명은 한 사람의 분류학자가 다룰 수 있는 종 수는 200여 종이 적당하다고 하면서 이를 후학들에게 권유했다고 한다.[31] 이는 개체변이 연구뿐 아니라 총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살피고 정리해야 할 문헌의 양까지 감안한 판단이었다.

4. 『한국산 접류의 연구』

석주명의 한국 나비 연구 3부작의 두 번째로, 그의 사후 간행된 『한국산 접류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32] 이 책은 크게 3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①"한국산 접류의 연구사(補訂版)", ②"한국산 접류의 연구"(제3보), ③"한국산 이형 급 기형의 접"이 그것이다. 우선 "한국산 접류의 연구사"는 1939년 발표했던 "朝鮮産蝶類ノ研究史"(조선산 접류의 연구사)의 증보판이다.[33] 그는 *Synonymic List*를 위해 논저 목록을 만들면서 이 연구사를 "부산물"로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28)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hvd.32044107204497;view=1up;seq=11
29) 예를 들어, Vasily K Tuzov, *The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from the ex-USSR* (Privately published, 1993); Byung-Jin Kim, "Synonymic List and Distribution of Formicidae (Hymenoptera) in Korea", *Entomological Research Bulletin Supplement* (Korean Entomological Institute, Korea University, 1996), pp. 169-196.
30) 국립수목원·한국식물분류학회, 『국가표준식물목록』 (국립수목원, 2007).
31) 인터뷰: 김창환 (1996년 1월 24일).
32) 석주명, 『한국산 접류의 연구』 (보진재, 1972).
33) 석주명, "朝鮮産蝶類ノ研究史", 『朝鮮博物學會雜誌』 26호 (1939), 20-60쪽.

연구사는 한국산 나비와 관련된 주요한 문헌 목록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면서 각 문헌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으며, 학문적 의미가 떨어져 그 목록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관련이 있는 문헌을 별도 장에 소개했다. *Synonymic List*가 나비 종 중심으로 문헌을 해체하여 재구성했다면, 이 논문은 연도별로 문헌을 정리하고 각 문헌에 대해 짧막한 해제와 평가를 덧붙인 것이다. 결국 "조선산 접류의 연구사"는 *Synonymic List*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다.


52 韓國產 蝶類의 硏究史

ujo: Do. vol. 9, no. 37, p. 182-5, 1942.
6科 87種을 列擧하고 論하였다.
277. SEOK D. M. and UMITATSU T. J. —Butterflies of S. Heiando, Do. no. 37, p. 185-92.
8科 160種을 列擧하고 論하였다.
278. SIBATANI A. et ITO S. —Beitrag zur Systematik der Theclinae im Keiserreich Japan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Sogenannten Gattung *Zephyrus*, Tenthredo, vol. 3, no. 4, p. 299-334, 1942.
韓國關係의 分은 4族 16屬 27種이다.
279. SIBATANI A. —Über *Limenitis doerriesi* STAUDINGER, Trans. Kansai Ent. Soc., vol. 12, no. 1, p. 1-7, pl. 1-3, 1942.
韓國產 本種은 *doerriesi*와 *chosenis* 의 兩亞種으로 分類함이타당다고 하였지만 無意味한 일이다.
280. SIBATANI A. —Honpō-san Siximityō-ka 3 syu no Gakumei ni uite (On the Scientific names of 3 Lycaenids of Japan); Ent. World, vol. 10, no. 95, p. 50-1, 1942.
Plebejus 屬의 *argyrognomon*, *argus* 및 *subsolanus*의 3種을 다루었다.
281. SIBATANI A. —Honpō-san Tyōrui 3 syu Gakumei (On the Scientific names of 3 species of the butterflies of Japan); Do. no. 98, p. 28-30.
범부전나비, 스나이더어리프밍 및 몸어리표범의 學名에 對하여 論하다.
282. HASIMOTO, SEIBI—Sikoku kara sin-kirokuno tyōrui zyakkan-syu (Some unrecorded butterflies from Sikoku, Japan); Do. vol. 10, no. 102, p. 15-22, pl. 3, 1942.
取扱된 4種中 『선녀부전나비』의 分布에는 韓國도 들어있다.
283. NARITOMI Y. —Sikoku no tyōrui ni tuite(On the the butterflies of Sikoku, Japan); Do. vol. 10, no. 104, p. 6-11, 1942.

<"한국산 접류의 연구사", 1950>

이 논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연구사 개론"으로, 한국산 나비의 역사를 5시기로 구분했다. 이에 의하면 1기는 '학명으로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로 1881년까지이며, 2기는 '서양인이 기록한 시대'(1882-1901), 3기는 '주로 일본인(本邦人)이 기록한 시대'(1905-29), 4기는 '內外人이 추록(追錄)한 시대'(1924-39)이고, 5기는 '정리의 시대'(1940-50)로 구분되었다. 1939년에 발표된 "朝鮮産蝶類ノ硏究史"에도 동일한 '연구사 개론'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리의 시대를 1934-39년으로 정하고, 이는 森爲三 · 土居寬暢 · 趙福成의 『原色朝鮮の蝶類』(朝鮮印刷株式會社, 1934)[34]에서 *Synonymic List*가 완료된 때까지로 설명했다. 『원색조선의 접류』는 조선산 나비 8과 271종에 대한 도감으로, 조복성은 284개체에 이르는 나비의 그림을 직접 그렸다. 하지만 1950년의 연구사 개론에서는 이 책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석주명은 이 책에 대해 "획기적 대저(大著)"라고 평가했지만 동시에 이명을 정리하면 8과 214종 밖에 안되고 한국산으로 최초 기록도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Synonymic List*가 간행된 이후 『원색조선의 접류』가 지니는 중요성이나 의미가 크게 반감되었다는 것이 석주명의 평가였다.

1950년에 완성되어 유고에 실린 "한국산 접류의 연구사"를 1939년의 "제1보"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것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한글로 작성되었고, 이전에는 독립적인 논문으로 발표된

34) 森爲三 · 土居寬暢 · 趙福成, 『原色朝鮮の蝶類』(朝鮮印刷株式會社, 1934). 조복성은 경성제대 예과 교수 모리의 조수로 일을 하고 있었고, 도이는 조복성의 평양고보 시절 은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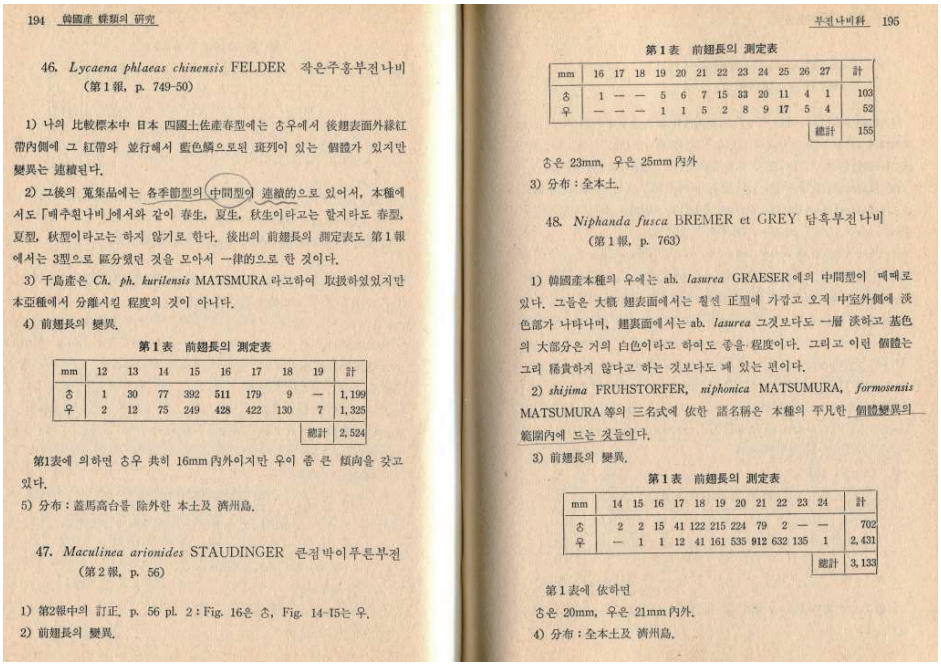
“나비에 관한 한국 고전의 해설” 등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35] 이전 글과 마찬가지로 주요 문헌을 연대별로 정리한 목록, 기타 문헌, 그리고 다섯 시기로 구분한 한국산 나비 연구사가 들어있고, 여기에 “나비에 관한 한국고전의 해설”, “저자가 정리한 이명의 목록”, “한국산으로 오보된 종류들의 유래”가 추가되었다. 석주명은 서론에서 원판과 다른 점이 우리말로 바꾼 것과 “나비에 관한 한국고전의 해설”을 첨가한 것이라 밝혔는데, 이는 비록 석주선에 의해 유고로 간행되었지만 석주명이 곧 출판할 계획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국산 접류의 연구』에 실린 두 번째 글은 “한국산 접류의 연구(제3보)”로, 1942년에 발표된 2보의 후속편이다. 석주명은 1934년부터 특정 지역의 나비상이나 몇몇 종의 변이 등을 다룬 논문 외에 한반도 전체의 나비상을 취급하는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朝鮮産蝶類の研究(第一報)”(조선산 접류의 연구 제1보)가 그 시작이었다.[36] 이 논문은 아종을 포함해서 138종에 대해 16만 여 표본을 조사하여 개체변이를 밝힌 결과를 담고 있었다. 각각의 종에 대해 형태적 특징, 중요 선행 연구, 앞날개 길이 변이표, 채집 지역, 계절형에 대한 서술, 뱀눈무늬 표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했으며, 마지막에 169개의 동종이명 리스트를 덧붙였다. 15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논문은 당시까지 나온 조선산 나비 연구에 석주명이 직접 수행한 결과를 추가해 종합한 역작이었다. *Synonymic List*에는 각 종마다 기존 연구물의 서지사항만 나와 있고, 각 종마다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중요 연구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그에 비해 “조선산 접류의 연구(제1보)”는 이 논문만으로 후속 분류학 연구를 위한 직접적이고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이 논문의 가치를 인정한 왕립 아시아학회 한국지부가 석주명에게 *Synonymic List*의 집필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1942년 석주명은 “朝鮮産蝶類の研究(第二報)”(조선산 접류의 연구 제2보)를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이 논문은 『鹿兒島博物同志會研究報告』(가고시마 박물동지회 연구보고)가 7년간 정간되었다가 다시 간행되는 특별호였다. 여기에는 가고시마 박물동지회 회장 오카지마의 서문과 석주명의 “朝鮮産蝶類の研究(第二報)”과 “朝鮮産異型及畸型の蝶”(조선산 이형 및 기형의 접) 두 편의 논문만 실렸다. 즉 139쪽에 달하는 잡지가 석주명의 논문만을 위해서 발간된 셈이었다. 오카지마는 “조선산 접류의 연구에 관해 풍부한 자료를 획득하고, 정밀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시종일관된 노력으로 사계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는 석주명의 대단한 연구업적 두 편으로 특별호를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37] “조선산 접류의 연구 제2보”의 구성은 1934년에 나온 “제1보”와 동일하다. 이 논문은 7개과 108종을 다루고 있으며, 각 종마다 형태적 특징, 중요 선행 연구, 앞날개 측정표, 뱀눈무늬 분류표, 서식지 등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에 243개의 동종이명 목록을 덧붙였다.

그리고 1950년에 집필된 “한국산 접류의 연구(제3보)”는 그 후속편이자 마지막 종합판이다. 앞의 “제1보”, “제2보”와 달리 한글로 집필되었으며, 그 밖의 구성은 동일했다. 이 논문에서는 7과 80종, 167,416개 표본을 다루었는데, 앞선 “제1보”, “제2보”의 8과 192종 42,939개와 합하면, 총 8과 211종 201,367개체가 된다. 그는 이러한 조사 · 연구를 통해 석주명은 한국산 나비의 동종이명 921개 중 90%가 넘는 844개 학명을 정리하였다.

35) 석주명, “한국산 접류의 연구사”, 『한국산 접류의 연구』, 5-57쪽.
36) 석주명, “朝鮮産蝶類の研究(第一報)”, 『鹿兒島高等農林學校開校二十五周年記念論文集』 前篇 (1934), 631-784쪽.
37) 岡島銀次, “特別號發刊の辭”, 『鹿兒島博物同志會研究報告』 5권 16호 (1942), 3쪽.



194 韓國産 蝶類의 硏究

46. *Lycaena phlaeas chinensis* FELDER 작은주홍부전나비
(第1報, p. 749-50)

1) 나의 比較標本中 日本 四國土佐産春型에는 ♂♀에서 後翅表面外緣紅帶內側에 그 紅帶와 並行해서 藍色鱗으로된 斑列이 있는 個體가 있지만 變異는 連續된다.

2) 그後의 蒐集品에는 各季節型의 中間型이 連續的으로 있어서, 本種에서도 「배추흰나비」에서와 같이 春生, 夏生, 秋生이라고는 할지라도 春型, 夏型, 秋型이라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後出의 前翅長의 測定表도 第1報에서는 3型으로 區分했던 것을 모아서 一律的으로 한 것이다.

3) 千島産은 *Ch. ph. kurilensis* MATSMURA 라고하여 取扱하였었지만 本亞種에서 分離시킬 程度의 것이 아니다.

4) 前翅長의 變異.

第1表 前翅長의 測定表

mm	12	13	14	15	16	17	18	19	計
♂	1	30	77	392	511	179	9	—	1,199
♀	2	12	75	249	428	422	130	7	1,325
								總計	2,524

第1表에 의하면 ♂♀ 共히 16mm 內外이지만 ♀이 좀 큰 傾向을 갖고 있다.

5) 分布 : 蓋馬高台를 除外한 本土及 濟州島.

47. *Maculinea arionides* STAUDINGER 큰점박이푸른부전
(第2報, p. 56)

1) 第2報中의 訂正. p. 56 pl. 2 : Fig. 16은 ♂, Fig. 14-15는 ♀.

2) 前翅長의 變異.

부전나비科 195

第1表 前翅長의 測定表

mm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計
♂	1	—	—	5	6	7	15	33	20	11	4	1	103
♀	—	—	—	1	1	5	2	8	9	17	5	4	52
												總計	155

♂은 23mm, ♀은 25mm 內外

3) 分布 : 全本土.

48. *Niphanda fusca* BREMER et GREY 담흑부전나비
(第1報, p. 763)

1) 韓國産本種의 ♀에는 ab. *lasurea* GRAESER 에의 中間型이 때때로 있다. 그들은 大概 翅表面에서는 훨씬 正型에 가깝고 오직 中室外側에 淡色部가 나타나며, 翅裏面에서는 ab. *lasurea* 그것보다도 一層 淡하고 基色의 大部分은 거의 白色이라고 하여도 좋을 程度이다. 그리고 이런 個體는 그리 稀貴하지 않다고 하는 것보다도 흔 있는 편이다.

2) *shijima* FRUHSTORFER, *niphonica* MATSUMURA, *formosensis* MATSUMURA 等의 三名式에 依한 諸名稱은 本種의 平凡한 個體變異의 範圍內에 드는 것들이다.

3) 前翅長의 變異.

第1表 前翅長의 測定表

mm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計
♂	2	2	15	41	122	215	224	79	2	—	—	702
♀	—	1	1	12	41	161	535	912	632	135	1	2,431
											總計	3,133

第1表에 依하면

♂은 20mm, ♀은 21mm 內外.

4) 分布 : 全本土及 濟州島.

<"한국산 접류의 연구", 1950>

『한국산 접류의 연구』의 마지막에 실린 "한국산 이형 급 기형의 접"은 1942년에 발표된 글에 이후 확인한 일부 표본이 추가된 것이었다. 석주명은 이형 및 기형의 나비에 대해 여러 차례 발표한 일이 있으며, "조선산 접류의 연구"를 발표할 때마다 기형접, 이형접도 다량으로 평행하여 발표해왔다면서, 이 글도 기존 발표된 형식에 따랐다고 밝혔다.

사실 석주명이 펴낸 "접류 연구사"와 "접류의 연구"는 그의 표현대로 자매편이자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은 두 종류의 글이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되었지만, 비록 유고지만 이 책에 와서는 한 편에 묶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석주명 나비연구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1950년에 집필된 『한국산 접류의 연구』가 실제 출판된 것은 그로부터 20년이 더 지나서였고, 그 사이에 한국산 나비분류학도 꾸준히 발전하면서 변화했기 때문에 석주명의 유고가 지니는 가치는 크게 약화되고 말았다. 이 책에서 석주명은 한국산 나비가 8개과 234종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는 5과 280여 종으로 정리되었다.[38] 60여 년 동안 나비분류학의 발전 속에서 석주명의 연구도 상당 부분 재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산 접류의 연구』에 실린 그의 논문이 집필되었던 1950년 당시에 바로 출간되었다면 한국산 나비 연구의 진전에 큰 힘이 되고, 그의 연구 경력도 훨씬 더 빛날 수 있었을 것이다.

5. 『한국산 접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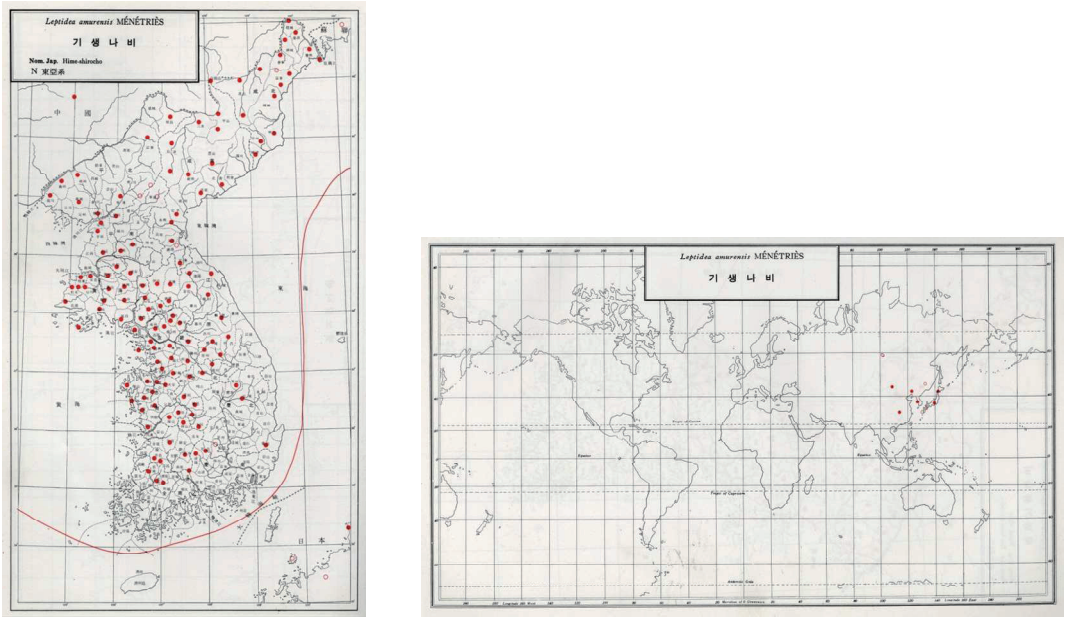
1942년 석주명이 "조선산 접류의 연구(제2보)"를 발표한 이후로 석주명의 나비 연구 논문은 크게 줄어든다. 이는 일제 말기의 폭압적 전시체제 하에서 전쟁과 직접 관련된 일부 분야를 제

38) 국립생물자원관, 『국가 생물종 목록집 「곤충」 (나비목 II)』 (2014).

외한 사회 전반의 학문 연구활동이 위축되었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외형적인 양의 감소가 반드시 그의 연구가 부진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의 변이연구가 종합 · 정리의 단계에 들어섰으며 그와 함께 관심의 영역이 새로운 분야로 확대된 결과였고, 이는 변이연구로 나타났다.

석주명은 자신이 채집 다닌 곳을 지도에 표시하는 동시에 나비를 채집한 장소를 지도에 기록하면서 분포연구도 겸하였다. 각 종의 분포 상태를 기록하여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을 구하여 서식 범위를 설정하고 거기에 그 지역의 기온, 강수량 등의 자료를 덧붙인다면 특정 종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분포연구는 생태학 · 생물지리학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 분포연구가 실린 첫 논문은 "조선산 봄처녀나비의 변이연구"로, 이 논문의 뒷부분에는 3장의 도판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마지막 장이 봄처녀나비의 분포 상태가 기록된 지도이다.[39]

이 지도에는 그 동안 문헌상에서 채집되었다고 보고된 장소와 석주명 자신이 실제로 채집한 장소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분포연구가 석주명의 후기 나비연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0여년 이상의 개체변이 연구가 어느 정도 정리 단계로 접어들자 분포연구라는 관심을 초점을 확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러한 분포연구와 변이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형태에만 치중하는 분류학에서 벗어나 유연관계를 고려하여 계통을 세우고 환경과 분포의 관계까지도 밝혀내는 곤충학을 추구하려 하였다.



<『한국산 접류 분포도』, 1973>

비록 그러한 연구를 완성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석주명이 수행한 분포연구의 전체 결과물은 『한국산 접류 분포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40] 이 책은 1973년에야 출판되었는데, 250여 종

39) 石宙明, "朝鮮産ヒメヒカゲの變異研究", 『關西昆蟲學會報』 8호 (1939), 72-80쪽.
40) 石宙明, 『韓國産 蝶類 分布圖』 (寶晋齋, 1973).

의 한국산 나비가 한국과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는 500여 장의 지도가 들어 있다. 각 종마다 그와 그의 제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해당 종을 채집한 위치가 하나하나 표시된 한국지도와 그가 세계 각지의 학자와 표본, 학술 자료를 교환하여 얻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나비가 발견된 지역을 표시한 세계지도가 한 장씩 담겨있다.

사실 석주명이 접류 분포도를 한 권의 책으로 펴내려했는지, 출판을 결심했다면 언제쯤 계획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또 다른 유고인『한국산 접류의 연구』에는 짧은 서론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한국산접류의 연구사" 보정판을 내기로 했다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그의 사후에 출판되었지만 1950년에 석주명이 출판을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접류 분포도에는 석주선의 서문만 실려 있고 석주명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다. 비록 환경과 분포의 관계를 밝힌다는 장기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항상 연구의 단락을 짓고자 했던 그의 태도를 생각해볼 때 20여 년의 분포 연구가 집적된 이 책을 1950년 즈음에 출간할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까지의 연구 결과가 담긴 분포도가 23년이 지나서야 인쇄되었기에 학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6. 맺음말

석주명의 나비채집 관련 유품 14점은 2014년 등록문화재 제610호로 지정되었다. "나비연구가로서 세계적인 곤충학자로도 인정되는 큰 업적을 남긴 석주명 박사의 나비채집 관련 물품이다. 기성품이 아닌 독창적으로 제작한 과학 도구와 연구 도구로서 석주명 박사가 활발히 활동한 1930-1940년대 우리나라 과학사 및 생활사를 밝혀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41] 하지만 "세계적인 곤충학자로도 인정되는 큰 업적"인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역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책이 지정되지 못한 것은 10여 곳이 넘는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어서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영국대영박물관 등 해외 중요 기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석주명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외 13곳의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잡지인『과학조선』이나 한반도 주변 바다를 관측한 결과를 담고 있는 보고서인『해양조사연보』등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한국인 과학자가 펴낸 유일한 영문 단행본으로 *Synonymic List*가 지니는 역사적 가치도 그에 못지않다고 여겨진다.

*Synonymic List*는 석주명의 대표작이자 그의 이름을 국제 학계에 널리 알린 성과였다. 이 책은 나비학자로서의 석주명의 면모 외에 스승인 오카지마가 지적했듯이 방대한 자료를 촘촘하게 정리하는 서지학자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필자는 그간 석주명이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그가 택한 방법론이 자신의 여건에서 가능한 최선의 것이었으며, 당시의 분류학 연구상황에서 볼 때 매우 적절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았다. 즉, 후발 주자로서 다수 표본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의 오류를 교정하려 했으며, 특히 개체변이를 밝힘으로써 동종이명을 정리하려 했던 접근법이 탁월한 판단이었다는 결론이었다. 아울러 그같은 연구방법을 뒷받침했던 '정진 노력'이 결합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Synonymic List*를 꼼꼼히 검토한 지금은 '정진 노력'이 부지런히 채집하고, 확보된 표본을 정리하는 분류학 연구 외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체

41) 문화재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pageNo=5_2_1_0&ccbaCpno=4413106100000).

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도 포함해야 함을 확인했다. 분류학 연구에 통계적 방법을 도입했던 선구적 인물이었던 석주명은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서지학적 접근에서도 남다른 실력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물이 *Synonymic List*였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단련된 자료 정리법은 이후 방언 등 제주학 연구에서도 충분히 활용되었다. 필드 워크를 통한 방대한 자료 수집은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관련된 문헌을 찾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서지학으로 확장되었던 것이다.

석주명의 한국산 나비연구 3부작 중 2권은 유고로서, 집필된 지 20여 년이 더 지나서 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니는 가치는 *Synonymic List*에 비견하기 어렵다. 비록 집필 당시 바로 공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지만 연구사와 구체적인 연구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 『한국산 접류의 연구』는 석주명의 나비 연구를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의 학문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1948년 좌담회에서 보였던 석주명의 자신감, 그것은 근거는 *Synonymic List*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했던 “한국산 접류의 연구” 시리즈, 한국산 접류의 분포 연구였다. 따라서 비록 유고이지만 『한국산 접류의 연구』와 『한국산 접류 분포도』도 석주명의 중요 업적으로 함께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